1. 문학은 형식적인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다.
2. 낯설게 하기
3. 문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상상적(허구적)인 것만이 문학은 아니다. – 수필, 편지, 철학 등도 문학취급을 받음

사실과 허구의 구분은 모호하다. Ex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구로 취급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사실성 또는 허구성으로 문학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언어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문학은 일상언어를 변형시켜서 사용

위 경우에는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 자체의 물질적인 실체(구조, 물질적 형태, 법칙 등)이다.

러시아의 형식주의 – 언어학을 문학연구에 응용

내용은 단지 형식을 발동시키고 특정 종류의 형식적 활동이 일어나기 위한 계기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문학의 형식적 요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낯설게 하기’라는 방식

일상언어를 비틀고 응축시키고 압축시켜서 낯설게 만든 언어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은 상투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낯설게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상(내용)은 낯선 언어(형식)가 가져온 긴장감을 통해 새롭게 느껴지고 집중하게 된다. 일상을 더 충실하고 깊게 파악할 수 있다.

문학언어는 규범에서 이탈한 것이다. 일종의 언어적 폭력 일상언어와 대조되는 특별한 언어

일상언어와 문학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규범을 밝히는 것.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규범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 지역, 성, 지위, 시대 등에 따라 일상언어는 다르다. 하나로 규정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특정 한 글이 문학에 해당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학적인 특성은 영속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다.

시대, 지역 등에 따라 문학적으로 인식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학의 본질은 ‘낯설게 하기’

어떤 언어가 문학언어인지 구분하는 한 방법은 그 것이 문학이라고 취급될 수 있는 텍스트의 일부분인가라는 판단 기준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다.

‘낯설게 하기’를 기준으로 문학을 구분하는 것은 모든 문학을 시로 여기는 것.

‘낯설게 하기’의 문제는 해석에 따라서는 모든 글에 이 것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일상 언어 조차도 애매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낯설게 하기로 여길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문학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일상언어의 쓰이는 문장을 그것의 실제적인 뜻이 아닌 더 깊은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문학은 비실용적인 담론 – 실제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읽기로 결정하는가 이다.

글이 문학작품으로 쓰여졌건 혹은 그렇지 않던 간에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문학으로 여겨 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사람들이 글에 자신을 관련시키는 방식이다. – 문학의 본질은 없다.

문학과 잡초는 비슷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구분된다.

문학은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 어떤 것도 문학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어떤 훌륭한 문학도 상황이 변하면 문학의 취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과거의 훌륭하게 평가받은 고전들이 지금도 똑같이 휼륭한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동일한 부분 때문에 작품을 훌륭하다고 평가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모든 문학작품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읽는 사회에서 다시 쓰여진다.

모든 사실은 가치판단이 들어간다. 중립적인 사실의 진술은 불가하다. – 중립적으로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 조차도 그 내면에 가치판단이 들어있다.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있는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Vs

교수 say

문학에도 규칙이 존재. – 규칙을 벗어난 것은 문학이 아니다.

문학은 자의적 – 시대, 지역등의 영향을 받는다.

함축적인 언어의 사용

문학은 개연성이 존재 해야한다.

문학에는 일종이 패턴이 있다.